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경험 및 실태조사: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중심으로

김민지*, 김영욱**, 김준혁*, 김가희***, 최홍석****, 문광태*****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인천바로병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 수련 작업치료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제공한 업무 경험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방법 : 2022년 11월 7일에서 11월 14일까지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수렴하였으며, 수집된 응답지 46부에 대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설문응답자는 여자(58.7%), 20~30대(84.8%)가 가장 많았고,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41.3%)에서 근무하였으며,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91.3%)을 수료하였다. 정신건강분야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65.2%), 담당 업무는 프로그램(71.1%), 사례관리(62.2%), 행정업무(57.8%)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73.9%)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자료 분석 결과 신체기능 중심 그룹 중재의 빈도는 주 1~2회(41.2%)가 많았고, 스트레칭, 유산소운동, 산책 순이었으며, 개별 중재의 빈도는 주 1~2회(38.1%)가 많았고, 산책, 스트레칭, 유산소운동 순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작업과 일상생활활동에 균형 잡힌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다수의 작업치료사들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작업치료적 중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의 중요성과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근거 기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신체기능 향상, 작업치료, 정신건강,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지역사회

I. 서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적어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 질환, 신체 불만족의 비율이 높다(Hyun & Lee, 2019). 또한 심혈관 질환, 암, 기타 만성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환의 위험이 일반 대중보다 10~24% 높고, 대사 증후군은 2~3배 많이 발생한다(Protopopova et al., 201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중재를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및 운동은 정신질환자(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물 남용 등)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이점을 준다고 하였다(Rosenbaum et al., 2016).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는 19세기 초에 시작된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도덕적 치료 운동(moral treatment movement)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인간이 작업을 하며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작업치료를 제공한다(Ikiugu, 2004). 국내에서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로서 신체적 기능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담당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Gibs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면서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장애, 경도 우울증 및 약물 남용에 대한 개선 효과를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작업치료사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신체기능 향상에 대한 강점을 가지며,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교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회복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하였다(Burson et al., 2017). 또한 영국 및 캐나다에서도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작업 참여를 위해 정신 및 신체건강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 및 중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hin & Yoo, 2022).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건강작업치료를 정신건강 전문요

원에 포함시켰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를 기획·수행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정신건강제도의 개선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들은 기존 의료적 모델에서 직업재활을 포함한 정신사회적 모델로 작업치료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Jung & Cha, 2009). 또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Kim, 2021; Kim et al., 2021).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Lee, 2011). 정신건강작업치료사와 관련된 통계나 실태조사 연구가 있었지만 대상자 수가 적어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응답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현황 조사였다(Lee, 2011). 이후 진행된 연구는 29명의 정신건강작업치료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평가 현황, 정신건강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 등을 조사했으며, 작업치료사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Jang & Kam, 2023).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및 신체기능 향상 중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향상 중재 현황과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정신건강 분야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신체기능 향상 중재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들에게 필요한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총 50명 중 누락 및 오류 응답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하고 남은 46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모집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 근무 작업치료사를 통한 홍보,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홍보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로 정하였다. 연구 참여에 있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연구의 윤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중도 철회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들의 업무 특성과 근무 실태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신체기능 향상 중재 방법과 특성을 본 연구 설문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Kang & Kim, 2011; Lee, 2011). 6명의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개발 후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인, 작업치료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업무, 신체기능 중재방법, 중재방법의 빈도와 필요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 10문항, 주요 업무 3문항, 신체기능 중재방법 5문항, 중재 방법의 빈도 54문항, 필요도 5문항(총 7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량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응답에 따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낮음 등)에서 5점(매우 그렇다, 매우 높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성적 데이터는 개방형 질문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설문지에서 ‘신체기능(body function)’이라는 용어는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신체적, 생리적, 신경학적 기능이 포함된다(Healthcare Information Standard, 2021). 신체기능 향상 중재 방법에는 관절가동범위운동, 저항운동, 신장운동, 유산소운동, 균형운동, 요가, 손의 기민성 및 기능적 쥐기 훈련, 피부관리, 손톱관리, 음성 발화, 연하재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자세교정 훈련, 보행 훈련, 낙상예방 훈련, 에너지 보존법, 감각 자극, 강제유도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거울치료 등을 포함하였다(Alexandratos et al., 2012).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와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포함한다.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는 Window SPSS ver. 26 (IBM Corp.)을 통해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택형, 단답형 문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신체기능 향상 중재 필요도와 관련된 내용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의 p -value가 .05보다 작을 경우,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성적 데이터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진행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Kim, 2018). 5명의 연구자가 반복해서 전사된 자료를 읽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향상 중재와 관련한 의미 있는 업무 경험에 표시하였다. 이후 합의한 내용에 이름을 부여하고, 범주화에서 코딩된 자

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에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며, 범주 확인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주제를 추출했다. 연구자들은 응답을 취합 후 모두 워드에 전사했으며, 글자 크기 10 point, 줄간격 160, 줄번호 7,703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9명(41.3%), 여자가 27명(58.7%)이었다. 연령대는 20대 21명(45.7%), 30대 18명(39.1%), 50대 3명(6.5%), 40대와 60대 이상 각각 2명(4.3%) 순이었다. 학력은 학사 25명(54.3%), 석사 14명(30.4%), 전문학사 4명(8.7%), 박사 3명(6.5%)이었으며,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을 42명(91.3%)이 수료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1급 17명, 2급 62명으로 총 79명으로 확인되며(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3), 본 연구 대상자는 이들 중 약 53%가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은 경기·인천 18명(39.1%), 충청 7명(15.2%), 강원 5명(10.9%), 서울과 전라 각각 4명(8.7%), 대전과 제주, 세종 각각 1명(2.2%) 순이었다(Table 1).

2. 소속 기관 및 경력

소속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19명(41.3%), 정신의료기관 15명(32.6%), 자살예방센터 5명(10.9%), 정신재활시설 3명(6.5%), 장애인복지관 1명(2.2%)이었으며, 기타 3명(6.5%)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다. 작업치료 경력은 3~5년이 16명(34.8%)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정신건강 경력은 1~3년 30명(65.2%)이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제공한 경험은 34명(73.9%)이었다(Table 2).

Table 1. Status of Respondents (N = 46)

Variable	n	%	
Sex	Male	19	41.3
	Female	27	58.7
Age (yr)	20~29	21	45.7
	30~39	18	39.1
	40~49	2	4.4
	50~59	3	6.5
	≥60	2	4.3
Level of education	College	4	8.7
	Bachelor	25	54.4
	Master	14	30.4
Mental health training courses	Doctor	3	6.5
	Yes	42	91.3
	No	4	8.7
Region	Seoul	4	8.7
	Gyeonggi · Incheon	18	39.1
	Gangwon	5	10.9
	Chungcheong	7	15.2
	Jeolla	4	8.7
	Gyeongsang	5	10.9
	Dajeon	1	2.2
	Sejong	1	2.2
	Jeju	1	2.2

정신질환자에게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필요도와 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 향상 중재 제공에 대한 필요도, 작업치료 전체 경력, 정신건강 분야별 경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신체기능 필요도는 작업치료사의 필요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 작업치료 경력은 신체재활 경력과 신체기능 필요도와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재활 경력은 신체재활 필요도와 작업치료사의 필요도와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필요도는 작업치료사의 필요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 주요 업무

1) 담당하는 업무(중복 응답)

정신건강 분야의 작업치료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프

Table 2. Employment Status

(N = 46)

	Variable	n	%
Workplace	Mental health center	19	41.3
	Mental hospitals	15	32.6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y	3	6.5
	Suicide prevention center	5	10.9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1	2.2
	Etc.	3	6.5
Total experiences (yr)	≥1, <3	12	26.1
	≥3, <5	16	34.8
	≥5, <10	8	17.4
	≥10	10	21.7
Mental health experiences (yr)	≥1, <3	30	65.2
	≥3, <5	6	13.1
	≥5, <10	3	6.5
	≥10	7	15.2
BFI intervention experiences	Yes	34	73.9
	No	12	26.1

BFI = body function improvement.

Table 3. Relation Between Needs and Other Factors

(N = 46)

	Total experience	BFI experiences	Need for BFI interventions	Need for OT
Total experience	1			
BFI experiences	.797**	1		
Need for BFI interventions	.293*	.219	1	
Need for OT	.236	.207	.555**	1

BFI = body function improvement; OT = occupational therapist.

* $p < .05$, ** $p < .01$

로그램(71.1%)이 가장 많고, 사례관리(62.2%), 행정업무(57.8%) 순으로 많았으며, 검진 및 평가(37.8%), 응급개입(31.1%), 소그룹치료(26.7%), 개별치료(24.4%), 인식개선사업(24.4%), 대집단치료(22.2%), 가족교육(22.2%), 직업재활(15.6%), 회계 업무(15.6%) 등 다양하였다. 후원홍보사업, 팀 웹진 작성 등, 캠페인 및 이동상담,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실습지도(2.2~4.4%)도 포함되었다(Figure 1).

신병적장애(91.4%)로 가장 많았고, 우울장애(82.9%), 양극성 및 관련 장애(65.7%), 불안장애(57.1%), 강박 및 관련 장애(28.6%), 지능장애(22.9%), 신경인지장애(20.0%),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20.0%), 수면장애(17.1%),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14.3%), 성격장애(14.3%), 파괴적충동조절 및 행실장애(11.4%) 등 다양하였고 해리성 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성장장애, 알코올사용장애(2.9~5.7%)도 포함되었다(Figure 2).

2) 신체기능 향상 적용 대상(중복 응답)

작업치료가사 정신건강 분야에서 신체기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

3) 신체기능 향상 적용 방법 및 환경(중복 응답)

신체기능 향상 적용 방법은 작업치료가사 직접 제공한 경우가 32명(9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접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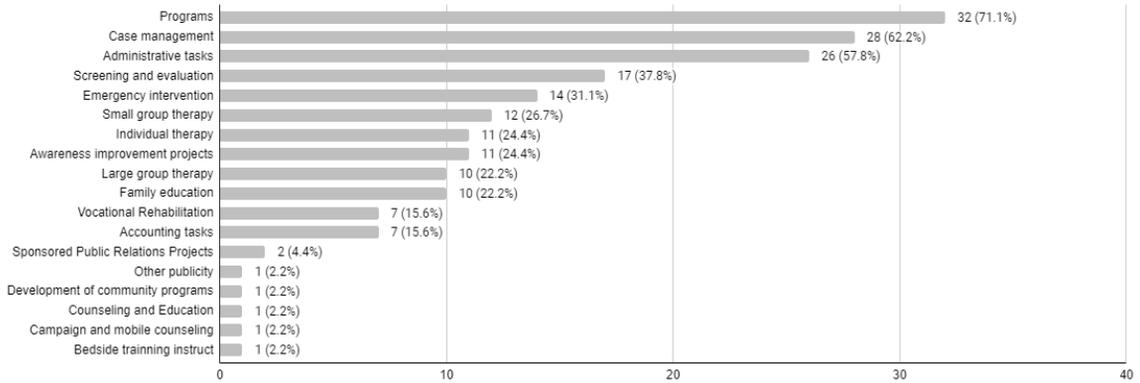


Figure 1. Responsibiliti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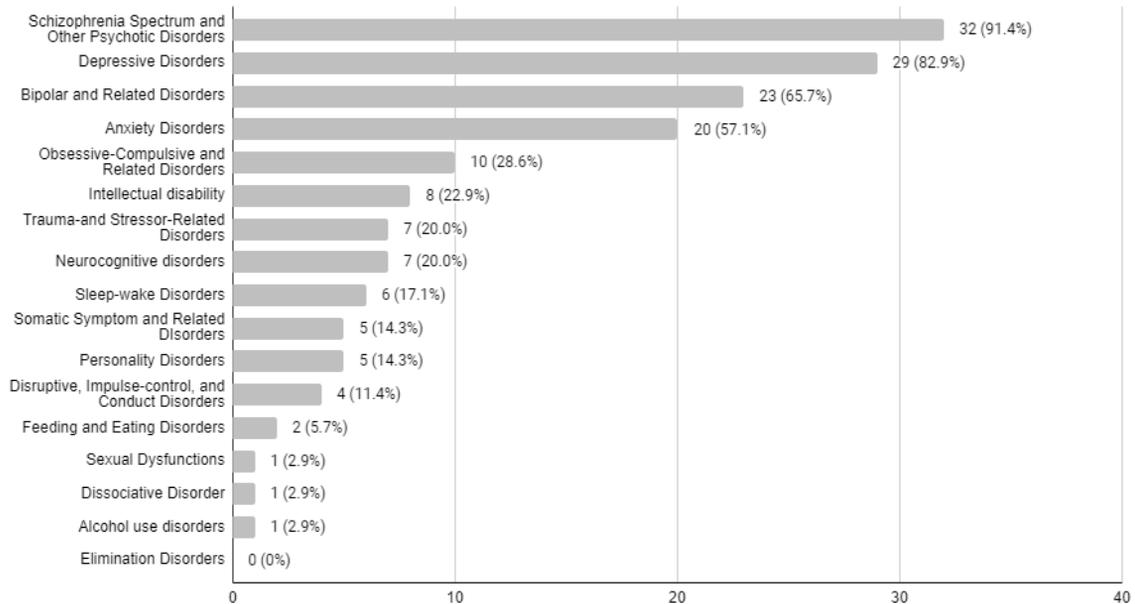


Figure 2. Target Population for Occupational Therapists Providing Body Function Enhancement Services in the Mental Health Field

17명(48.6%), 보조 영상 활용 1명(2.9%)이었다. 신체기능 향상을 적용한 환경은 기관 내 프로그램실에서 28명(82.4%)으로 가장 많이 제공하였으며, 기관 외 프로그램실 16명(47.1%), 대상자 가정 4명(5.8%), 기타로 기관 내 대운동장 1명(2.9%)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Table 4).

4) 신체기능 향상 중재 방법의 적용 빈도(중복 응답)

6점 척도 기준으로 확인한 작업치료사가 정신질환자에게 적용한 신체기능 향상 중재 방법은 1대 다수의

그룹 중재의 경우 스트레칭(4.0), 유산소운동(3.7), 산책(3.2), 저항운동 및 관절운동(2.5) 순이었으며, 연하재활, CIMT, PNF (0.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1대 1의 개별 중재의 경우 산책(4.0), 스트레칭(3.5), 유산소운동(3.3), 자세교정 훈련 및 낙상예방(2.8) 순이었으며, 연하재활, CIMT, PNF (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Figure 3).

Table 4. Methods of Applying Physical Function Enhancement

(N = 46)

Variable	n	%	
Body function improvement intervention (multiple response)	Direct approach	32	91.4
	Indirect approach	17	48.6
	Use of auxiliary images	1	2.9
Environment (multiple response)	Institutional program room	28	82.4
	Outside the institution program room	16	47.1
	House of the subject	4	5.8
	Institutional large playground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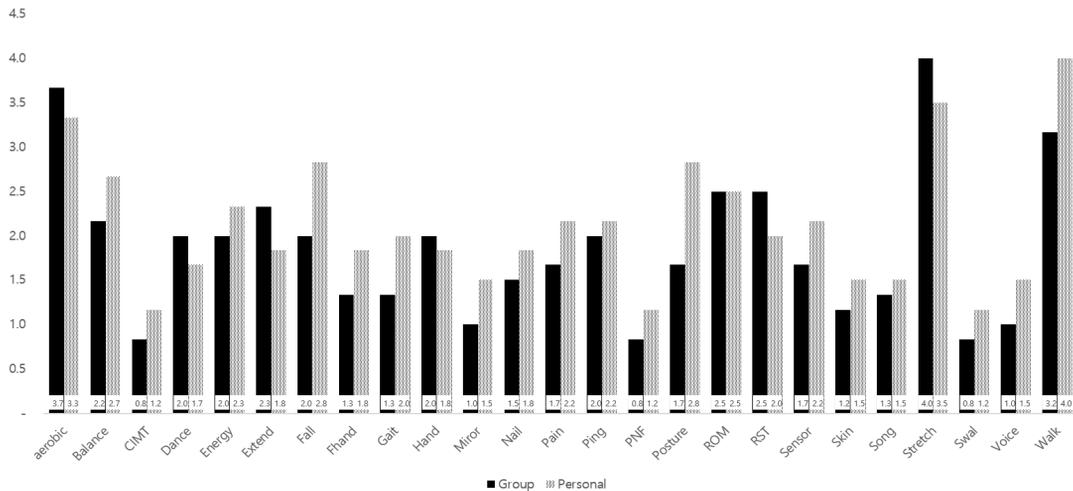


Figure 3. The Body Function Enhancement Interventions Appli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to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IMT =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PNF =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ROM = range of motion; RST = resistance training.

4. 질적연구 분석 내용

본 연구는 정신질환 환자의 신체기능 개선 개입의 중요성과 이러한 개입을 촉진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확인했다. 첫째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신체기능 개선 중재의 필요성, 둘째 주제는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 방법, 셋째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개선 중재 제공의 필요성이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신체기능 개선 중재의 중요성과 이러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한다.

1) 정신질환자를 위한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필요성
연구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음성 증상, 약물 부작용,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신체기능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절한 신체 정렬을 촉진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대사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질환자는 음성증상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기초체력 및 근력 저하, 감각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정상적인 신체 정렬 및 관절가동범위를 야기하

며 낙상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신체기능 향상을 통해 이런 부분을 증재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 1)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식을 하고 움직임이 저하된 경향이 있어서 체중 증가로 인한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가 절실하다. (대상자 43)

연구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호 연결성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 재활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신체와 정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정신질환자가 신체활동 후 우울한 기분과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을 경험했다. (대상자 3)

정신질환자는 주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이동, 섭식의 문제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신체적 활동을 통해 그들의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상자 32)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원활한 신체활동을 촉진하면 작업에 더 잘 참여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균형 잡힌 시간 관리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알코올로 인한 무력감, 우울감, 무료함으로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껴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정신질환자가 있었다. 뇌경색 과거력으로 인한 거동의 불편함으로 더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고, 위생관리, 청소, 옷 입기 등이 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눕지 않고 앉았기, 방 안에서 나오기, 하루 1번 쓰레기 버리러 집 앞 나오기 등의 작업

과제를 주어 생활 반경을 차차 늘렸다. 점차 산책을 하게 되고, 체력이 증진되어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물론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잘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 27)

정신질환자는 신체 및 정신기능 감소로 목적 있는 활동에 의미있는 참여가 어렵다. 그들의 작업 참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기능 향상이 필수적이다. (대상자 23)

신체기능은 일상생활활동 영역 및 사회기능 회복과 연관이 깊다. 정신질환자의 활동 수준 향상과 사회적 참여 기회 증가를 위해 신체기능 향상이 필요하다. (대상자 11)

2)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증재 방법

연구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신체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하고 싶은 다양한 증재 방법을 공유했다. 이러한 방법에는 작업 기반 치료, 신체 기반 치료, 동기 부여 강화, 삼킴 재활, 감각통합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또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과 개인의 목표와 동기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정신질환자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관의 프로그램 적용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으로 증재를 해보고 싶다. 그들이 관심있어 하는 볼링, 당구, 수영, 요가, 스트레칭, 복싱 등 다양한 스포츠를 활용해도 좋을 듯하다. (대상자 19)

근력, 유연성, 유산소, 균형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신체기능적 증재를 제공하면 좋겠다. (대상자 2)

정신질환자의 삼킴장애 치료를 위해 연하치료가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 20)

개인의 작업 목표를 파악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태권도단 취득, 연합체육대회 진출, 무용대회 참여, 바디프로필 찍기 등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고 신체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다. (대상자 37)

전정계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감각통합 치료, 목적에 따라 수치료나 시지각 훈련도 좋은 방법인 듯 하다. (대상자 40)

3) 정신질환자에게 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향상 증대 제공의 필요성

연구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자에게 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향상 증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작업치료사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이며, 정신질환자의 작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해부학적 및 재활적 접근이 가능한 직군이다. (대상자 42)

작업치료사는 평가 및 활동 분석이 체계적으로 가능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운동, 인지, 감각 기능의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여 신체 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대상자 45)

또한 작업치료사는 증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작업과 일상생활활동에 균형 잡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목표로 정신과 신체를 통합적으로 증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 및 신체 기능의 저하로 다양한 작업 활동 및 일상생활 참여가 저하되어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일과와 습관화 형성으로 적절한 작업 균형을 형성하여 통합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36)

IV. 고찰

신체기능이 향상된 사람들은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여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정신질환자 등의 작업수행평가,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분야 작업치료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기능 향상 증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신체기능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작업치료사 증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되어 작업치료사의 정신건강 분야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신건강 분야의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Lee (2011)의 연구와 비교하여 20대의 비중이 늘었으며, Jang과 Kam (2023)의 연구와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담당 업무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행정업무가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근무지가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wak과 Kim (2022)은 정신질환의 주요 치료약물인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였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를 권고하였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신체기능 향상 중재에 대한 강점을 언급하였다(Burson et al., 2017; Shin & Yoo, 2022).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에게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제공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람-환경-작업의 다각적 측면 중재 제공이 가능하다(Law et al., 1996).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환경을 고려한 평가 및 중재가 가능하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통합되고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Gibson et al., 2011). 때문에 작업치료사는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제공할 때,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client centered approach)이 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일상생활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신건강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Scheinoltz, 2010).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의 작업치료사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신체기능 향상 중재 방법과 필요성, 환경, 적용 대상, 주요 중재 방법 및 적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신체기능 향상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이다.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및 중재 사례와 근거 기반의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신체기능 향상 중재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이

73.9%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사의 의견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분야 및 연령대의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구체적인 효과나 실제 환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도 제안된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신체 건강관리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측면을 평가 및 분석할 수 있고, 중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작업과 일상생활 활동에 균형 잡힌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의 중요성과 신체기능 향상 중재의 근거 기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Alexandratos, K., Barnett, F., & Thomas, Y. (2012). The impact of exercise on th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5(2), 48-60. <https://doi.org/10.4276/030802212X13286281650956>
- Burson, K., Fette, C., & Kannenberg, K. (2017). Mental health promo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S2), 7112410035p1-7112410035p19. <https://doi.org/10.5014/ajot.2017.716S03>
- Gibson, R. W., D'Amico, M., Jaffe, L., & Arbesman, M. (2011).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s for recovery in the areas of community integration and normative life roles for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3), 247-256. <https://doi.org/10.5014/ajot.2011.001297>
- Healthcare Information Standard. (202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https://www.hins.or.kr/board.es?mid=a10702000000&bid=0002&tag=&act=view&list_no=140
- Hyun, M. Y., & Lee, J. (2019). A study on physical activity, body-esteem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mentally ill persons. *Crisisonomy*, 15(3), 103-117.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3.103>
- Ikiugu, M. N. (2004). Instrumentalism in occupational therapy: An argument for a pragmatic conceptual model of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8, 109-117. <https://doi.org/10.1016/B978-032304182-9.50043-X>
- Jang, S. I., & Kam, K. Y. (2023). Survey on evalu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10(1), 1-12.
- Jung, M. Y., & Cha, Y. J. (2009).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supply-demand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7(4), 113-127.
- Kang, D. H., & Kim, S. O. (2011).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and the role of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1), 15-27.
- Kim, Y. S. (201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K. U. Ryu, J. W. Jeong, Y. S. Kim, & H. B. Kim (Eds.),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2nd ed., pp. 321-338). Pakyounsa.
- Kim, Y., Kim, M., & Moon, K. (2021). The work experience of occupational therapists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8(2), 21-32.
- Kim, M. N. (2021). *Effects of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applying behavior therapy for weight control in severe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wak, Y. B., & Kim, J. Y. (202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program for psychiatric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3(3), 261-277. <https://doi.org/10.4040/jkan.21222>
- Law, M., Cooper, B., Strong, S., Stewart, D., Rigby, P., & Letts, L. (1996). The person-environment-occupation model: A transactive approach to occupational performanc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3(1), 9-23. <https://doi.org/10.1177/000841749606300103>
- Lee, J. E. (2011). *Survey of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settings in Korea*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Act on medical articles on medical articles. The type and work of medical devices (the type of medical device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Scope of work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lated to Article 12(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023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9334&fno=106&gubun_no=9&menu_cd=04_02_02_04&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3).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status*. https://www.ncmh.go.kr/ncmh/board/openDataPoplView.do?menu_cd=07_02&board_id=ncmh_OPEN_BOARD_DATA&no=165
- Protopopova, D., Masopust, J., Maly, R., Valis, M., & Bazant, J. (2012). The prevalence of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the ten-year risk of fatal cardiovascular even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related psychotic disorders. *Psychiatria Danubina*, 24(3), 307-313.
- Rosenbaum, S., Tiedemann, A., Stanton, R., Parker, A., Waterreus, A., Curtis, J., & Ward, P. B. (2016). Implementing evidence-base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 Australian perspective. *Australasian Psychiatry*, 24(1), 49-54. <https://doi.org/10.1177/1039856215590252>

Scheinoltz, M. K. (2010).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for advanced practice*. AOTA Press.

Shin, C., & Yoo, E. Y. (2022). History of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 and entailment of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s according to amendment to mental health ac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0(4), 19-33. <https://doi.org/10.14519/kjot.2022.30.4.02>

Abstract

Survey of Work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A Focus on Physical Function Enhancement Interventions

Kim, Min-Jee*, B.H.Sc., O.T., Kim, Young-wook**, B.H.Sc., O.T.,
Kim, Jun-hyeok*, B.H.Sc., O.T., Kim, Ga-hee***, B.H.Sc., O.T.,
Choi, Hong-seok****, B.H.Sc., O.T., Moon, Kwangtae****, M.S., O.T.

*Yongin Mental Hospital,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

***Incheon Baio Lo Hospital,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in Mental Health Training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octoral Course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mental health and provid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body function in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mental health therapists between November 7 and November 14, 2022. A survey was distributed via email and 46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Results : The majority were female (58.7%), aged 20–30 years (84.8%), working in mental health centers (41.3%), and undergoing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y training (91.3%). They had 1–3 years of mental health experience (65.2%) and were commonly involved in programs (71.1%), case management (62.2%), and administration (57.8%). Interventions for physical functioning were common (73.9%), including group interventions (41.2%), such as stretching, aerobic exercise, and walk training,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38.1%), such as walking, stretching, and aerobic exercise.

Conclusion : Occupational therapists play a crucial role in enabl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to engage in daily life activities. However, relevant studies in this field are lacking.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y and the need for evidence-based services for physical function improvement interventions to provide more effective treatments for mental illnesses.

Keywords : Body function enhancement, Local community, Mental health,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y